협회동정

기획예산부

Networld+INTEROP '94 행사 참가

우리협회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의 통신·네트워크쇼인 Networld+INTEROP '94에 16명의 관련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참관단을 이끌고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고속·광대역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ATM과 LAN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구현으로 변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터롭 행사는 네트워크 신기술을 바탕으로 벤더간의 상호연동에 초점을 맞추어져 진행됐으며 네트월드 행사는 네트워크 관련기술이 반영된 상품의 흐름을 가늠케 했다.

이 행사는 크게 미디어 & 전송, WAN, 시스템 &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클라이언트/서버 플래트폼, 네트워크 &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등으로 구분되어 ATM, 고속 LAN, 스위칭 기술이 적용된 LAN, 리모트 솔루션, 멀티미디어, IBM 접속 솔루션, 통합 매니지먼트등 관련 신기술과 상품들이 선보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주소를 가늠케 했다.

인터롭쇼 주관사인 인터롭 컴퍼니가 개최한 이 행사에는 네트워크 관련 업계, 학계, 사용자등 7만명이 참관했다.(담당 : 이욱재 과장)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Networld+INTEROP '94 행사장 전경

94 EWI 정기이사회 관련 대책 협의

우리협회는 지난달 12일 EDIKOR 회장단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ATEL 대표이사실에서 '94 EWI 정기이사회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최성규(우리협회 기조실장) EWI 이사회 한국대표 후임에 대해 논의돼 현재 우리협회 산하 한국EDI협의회 회장인 김대규(에이텔 사장)씨를

추천키로 했다.

94 EWI 정기이사회는 오는 6월 15일 영국 브리튼 메트로폴라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동장소에서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EDI 관련 'PRO GRAMME'행사도 개최된다.(담당 : 이욱재 과장)

ION '94 행사 준비위원회 참석

우리협회는 지난달 17일 OSIA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정보통신 상호운용 워크숍 및 전시회(ION '94) 추진 준비위원회에 참석했다.

ETRI 홍진표 센터장외 8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장소선정, 일정, 행사예산, 행사조직등이 집중논의됐다. 이에 따라 장소는 비용, 이용자 편의 및 대외적 이미지등을 고려해 63빌딩 대회의실 및 전시장을 이용키로 했다. 전시회 일정은 3일간으로 하고 마지막 2일간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일정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올해 행사는 전자통신연구소가 주관키로 해 양승택 소장이 대회장을 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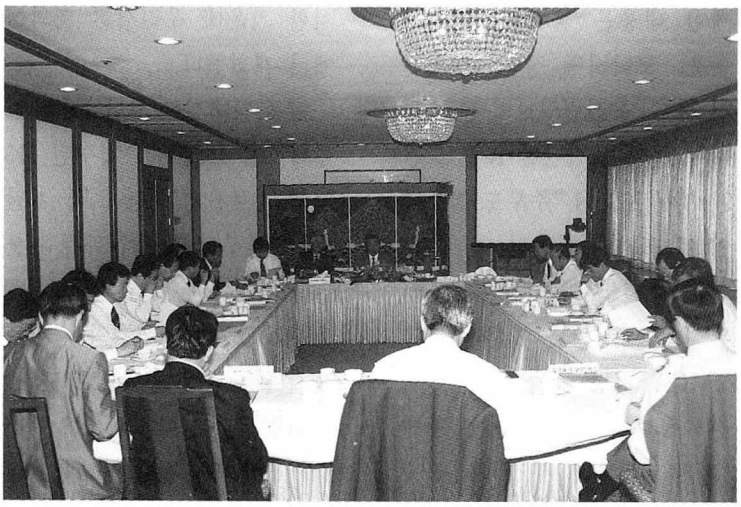
이 행사는 우리협회를 비롯, 개방형통신연구회,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기술협회등이 공동의 주최할 계획이다.
(담당 : 이욱재 과장)

제33회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달 17일 상의클럽 S룸에서 정장호 회장외 2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윤석근 국장(체신부 정보통신국) 초청 특강(관련기사 24쪽 참조)이 있었으며 한국EDI협의회 구성현황, 주요업무(4월~5월)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부의안건으로 정보윤리위원회 실행예산 승인, 회원가입 승인등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위원장 김대규(에이텔 사장), 부위원장 김규수(한국무역정보통신 이사) 그리고 산하 제도분과위원장 박영조(한국증권전산 상무), 조사연구분과위원장 김동규(아주대 교수),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정문성(현대전자 이사), CALS분과위원장 김규수(한국무역정보통신 이사) 등을 주요골격으로 하는 한국EDI협의회 구성현황과 관련 운영세칙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약직 고용세칙(안)이 보고됐다. 또한 4월과 5월중 추진한 우리협회 주요업무(건의 활동, 사



▲ 제33회 이사회에서는 체신부 윤석근 국장의 특강, 정보윤리위원회 실행예산 승인 등이 있었다.

업 환경조성 활동) 등도 보고됐다. 이와함께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요원 신규채용, 불건전 정보 모니터용 전화 및 집기비품 구입등에 따른 정보윤리위원회 실행예산 승인건과 (주)크린그린, 삼성전관(주), 청호컴퓨터(주), (주)삼보컴퓨터, 한국AT&T GIS(주) 등의 회원가입 승인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신임 김인자 정보윤리실무위원장이 제28차 정보윤리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보윤리위원회

정보윤리위원회 홍보 강화

한국방송공사는 지난달 10일 우리협회를 방문, 정보윤리위원회의 정보윤리업무를 취재했다. 이날 한국방송공사에서 취재한 내용은 불건전신고센터 운용, 모니터링 장면, 심의신청 접수, 불건전정보의 원인 및 대책 등이며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KBS 1 "주부도 경쟁력이다" 프로에 방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협회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일과 11일 YMCA 강남 청소년회관에서 전화정보서비스에 관한 강연(강사 : 강성민 부장)과 교육(교육자 : 안광학 과장)을 실시했다.

또한 우리협회는 지난달 3일과 20일 각각 제28차, 제29차 정보윤리실무위원회를 김인자 위원장외 9명의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된 215건의 정보윤리 약식심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의 불건전정보 조치현황,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전화정보서비스 점검 등이 보고됐다. 부의안건으로는 4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된 '내가 왜 이러지' 등 158건의 정보윤리 심의, 정보윤리업무절차 변경 및 심의기준 개정(안) 등이 상정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보윤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자로 실무위원장을 박순백 교수(경희대)에서 김인자 부장(YWCA 회원활동부)으로 교체했다.(담당 : 정욱)

한국EDI협의회

CALS/EDI 세미나 개최

우리협회 한국EDI협의회 CALS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50여명의 CALS 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 CALS/EDI 세미나에서 김대규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 CALS 구현과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CALS/EDI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철환 교수(한국EDI협의회 CALS분과위원, 국방대학원)가 한국에서의 CALS 구현 정책방향에 대해, 김규수 이사(한국EDI협의회 CALS분과위원장, 한국무역정보통신)가 기업체에서의 CALS 적용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철환 교수는 "최근 CALS에 대한 개념이 군과 업체간의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적 CALS를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규수 이사는 "CALS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동체이며 진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이고 기술이며 표준임과 동시에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44쪽 참조)

이와 함께 우리협회는 지난달 한국EDI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참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EDI 제도분과위원회에는 데이콤 EDI사업본부 손우택 과장 등 27명이, EDI 조사연구분과위원회에는 건국대 전자계산학과 한선영 교수 등 43명이, EDI 국제협력분과위원회에는 에스티엠 기술연구소 황진경 부장 등 19명이, CALS분과위원회에는 광운대 전자계산학과 이수연 교수 등 25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담당 : 박민)

●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자유토론 광장

- 일 시 : 1994. 6. 24 14 : 00 ~ 18 : 00
- 장 소 :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
- 주관·주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